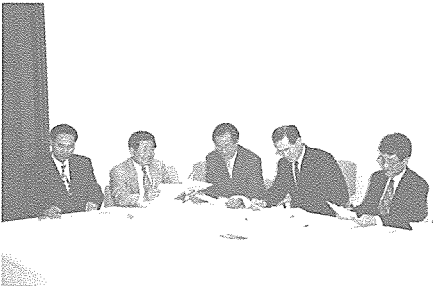


'97. 전국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현상 공모

소중한 · 조승준 군에 대상

전국서 1만4천5백여편 응모. 1,242편 입상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소년한국일보가 실시한 '97. 전국 초등학교 대상 금연글짓기 현상 공모에서 전주초등학교 5학년 소중한 군과 부평초등학교 4학년 조승준 군이 대상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금연운동협회의 후원으로 어린이들에게 흡연의 위해와 금연의 효과를 일깨우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금연연구의 확산을 위해 실시한 이 현상

공모에 전국에서 1만4천5백여편이 응모되었다.

지난 5월 6일, 한국 어린이 사랑회 김종상 회장, 보건복지부 박기준 전 보건정책과장 (현 국립보건원 기획지원부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배정구 보건교육국장, 김장석 보건교육과장, 동시작가 박두순씨, 소년한국일보 이재무 편집국장 등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작품 최종 심사에서는 대상 외에 금상 5명, 은상 10명, 동상 25명, 가작 50명, 장려상 150명, 입선 1,000명의 작품을 선정했다.(수상자 명단 42쪽)

이들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5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한국일보사 강당에서 한국건강관

리협회 임한중 회장과 소년한국일보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려상 이상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입상자와 입선자에 대한 상장과 부상은 6월 중에 해당 학교로 전달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상(대상) 수상자인 소중한 군과 조승준 군에 대해서는 5월 31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제1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이 상장과 부상을 시상했으며, 금상수상자 5명에 대해서도 임한중 건협 회장이 이날 재시상이 있었다.

◀40

조사연구국 정도선 대리, 마약류 오남용 예방표어 당선



건협 본부 조사연구국의 정도선 대리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불법 마약류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97 마약류 오남용 예방표어 현상 공모에서 가작으로 당선되

었다. 정대리는 '마약의 유혹, 죽음의 그림자'라는 표어를 제출. 당선되어 상금을 받았다.

인천·제주 지부, 양호교사 초청 공개강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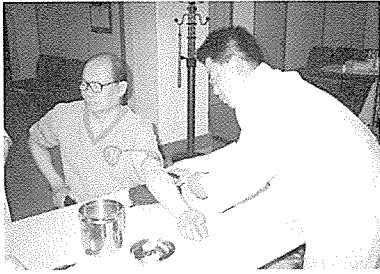


인천지부와 제주지부가 지난 4월 11일과 16일에 각각 양호교

사 초청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인천지부는 시내 양호교사 및 학교보건 관련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하의대 소아과 김순기 교수를 초청해 '소아성 인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좌를 실시했다. 또 제주지부는 도내 양호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제주의료원 구자성 신경내과과장을 초청, '학동기 아동들의 신경계 질환'에 관한 강좌를 실시했다.

오재욱 충남 교육감, 대전충남지부 방문



충청남도 교육청의 오재욱 교육감이 지난 5월 17일 대전충남지부를 방문했다. 오 교육감은 이날 '96년도 학생건강검사 결과와 지부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사시설을 둘러 본 후 직접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지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신간안내

계획·행동이론·평가론 중심으로 한 '보건교육'

건강은 질병의 치료나 건강의 위험요인에 노출된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위험요인에 노출조차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려는 목표를 가진 건강증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박형종·김공현·김광기 교수 공저의 책자 '보건교육'은 바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 펴낸 책이다.

이 책은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을 연결하여, 보건교육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술하고 있다.

제1장 건강의 의의~제9장 보건교육의 미래 등 총 239쪽으로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 인천지부 방문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 유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여명이 지난 5월 2일 인천지부를 방문했다. 유 위원장과 문교사회위원들은 이날 지부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학생 건강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앞으로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구성된 이 책은,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을 공부하는 학생, 각급 정부기관의 관련 공무원, 산업보건요원 등을 비롯해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출판사 판 15,000원)

충북지부 공개강좌 활발



충북지부가 후원하고 충청매일신문사가 주최한 건강관리 공개강좌가 도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지난 4월 12일과 17일 공개강좌가 있었던 충청매일신문사 문화센터 홀은 강의를 듣고자 모인

도민들로 가득 차,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연세의대의 황수관 박사(12일)와 윤방부 박사(17일)를 초청, 신바람 건강법과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각각 실시한 이번 강좌에서는 추첨을 통해 참석도민들에게 건강관련 책자나 무료 종합검진 쿠폰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개강좌를 성황리에 끝마친 충청매일신문사와 건협 충북지부는 도민의 보건교육 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공개강좌의 정기적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만화 '담배 뿌리칠 수 있는 유혹' 제작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5월, 중고생 대상의 금연만화 '담배, 뿌리칠 수 있는 유혹'을 제작하여 전국의 중고등학교, 시도 보건과와 교육청, 시군구 보건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에 배부했다.

이 책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의 위해, 금연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과 건강증진,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장기적 측면에서의 금연인구 증대를 위해 1만부가 제작되어 지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기해 배포되었다.